

# 농식품부,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세... “소비자 부담 줄일 것”

### 3월 중순 계란 30구 6168원·닭고기 1kg 5870원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중순 기준 계란(특란 30구) 가격이 6168원으로 월초 대비 5.6%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587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공급량 확대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란 소비량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산란계 사육수는 7720만 마리로 평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과 계란자조금을 활용한다.

현재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에 납품하는 특란 30구 도매가격을 1000원 인하여 공급

하고 있다. 향후에도 납품단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종란 529만개를 수입하고 종계 사육기간 연장 등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닭고기 공급량은 6487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9% 늘었다. 향후엔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닭고기 3만t을 수입,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 코코아 가격 톤당 1만 달러 돌파...연일 최고가

### 올해에만 140% 급증

코코아 가격이 톤(t)당 1300만원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3배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뉴욕선물거래소에서 인도분 코코아 선물에 역대 최고가인 톤당 1만80달러(약 1300만원)에 거래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코코아 가격은 올해에만 140% 급증했으며, 지난 25일 하루 동안 상승한 가격만 톤당 710달러에 달하는 등 견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WSJ은 지난해 12월에도 코코아 가격이 톤당 4200달러를 기록해 1977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가격은 그 2배 이상이다.

불과 지난 14일 기준 코코아 가격은 톤당 7049달러였다. 이 가격 또한 당시 사상 최고가로 올 초에 비해 70%가량 상승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주 사이 톤당 3000달러가 또 올랐다. 특히 지난 25일 하루 동안 톤당 710달러가 상

승하며 역대 최대 일간 상승폭을 보였다.

코코아 가격이 급증한 건 지난 여름 서아프리카에 닥친 이례적인 폭우 때문이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나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 약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폭우로 코코아 꼬투리가 쉽게 변하는 ‘흑점병’ 등 각종 병충해가 확산해 코코아 수확량이 감소했다.

국제코코아기구(ICC)가 예상한 올해 코코아 생산량은 450만톤이다. 예상 수요량보다 33만톤 적다.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코코아 보유량 역시 전년 대비 14만5000톤 감소할 전망이다.

이상 기후로 코코아뿐 아니라 설탕, 커피, 올리브유 등 전 세계적인 식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 제조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초콜릿 회사 허쉬(Hershey)는 치솟는 원재료 비용 상쇄를 위해 지난해 일부 사탕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6.6% 하락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슬비기자

## 로봇청소기·코골이베개...맞춤형 공략 나선 청호나이스

### 울인원 물걸레 로봇청소기·AI 모션필로우 등 선보여

청호나이스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군들로 시장 공략 강화를 꾀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22일부터 울인원 물걸레 로봇청소기와 AI 모션필로우를 선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울인원 물걸레 로봇청소기는 고성능 BLDC 모터를 통해 숨어있는 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하고, 고압력 듀얼 물걸레질로 양손으로 꼭꼭 눌러 닦듯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청소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해

먼지통 자동비움을 실시하고, 물걸레 청소 후 더러워진 걸레는 최대 60도의 온수로 자동 온수세척과 최대 70도의 열풍 건조로 약취와 세균번식을 억제한다고도 보였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원격으로 구역별 이름 지정과 청소 시 순서, 청소 횟수 지정이 가능하다. 로봇청소기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공간에 대한 금지구역도 설정할 수 있다.

헬스케어 상품인 AI 모션필로우는 코골이 파장과 패턴을 분석 및 학습하고 반응하는 AI가 탑재돼 코골이 감지 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준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니



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도 1000여건 늘어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을 매매 거래하는 대신 증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의 경우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3070건)과 12월(2892건)과 비교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거래 시장이 꽁 막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바 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이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의 증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16.1%)로, 전년(14.5%)보다 1.6%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해

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70대 이상(3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점점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50대로, 지난 2020년(20.1%) 대비 6.5p 증가한 26.6%를 기록했다.

합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 2월 인구 이동 4년 만에 반등...주택거래 증가

### 통계청, 2024년 2월 국내 인구이동통계

지난달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2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가 4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3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2월 기준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뒤 4년 만에 반등했다. 2020년 78만명을 기록한 뒤 2021년 70만6000명, 2022년 66만4000명, 2023년 62만2000명으로 매년 줄어왔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2020년 19.2%에서 지난해 15.9%로 떨어진 뒤, 지난달 16.2%로 반등했다.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 동기대비 주택매

량이 증가했고 입주예정아파트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1.2%, 시도 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0%, 시도간 이동자는 0.9%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972명),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월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1.3%), 충남(0.9%), 경기(0.5%) 등에서 순유입, 울산(-1.3%), 경남(-1.3%), 제주(-1.0%) 등은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교 개학과 대학 입학 등 학업적 요인으로 인해 서울·경기 유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수권기자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새 컬러로 흥행 이어간다

삼성전자가 내달 초 울인원(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콤보 AI’ 제품군에 ‘새틴라이트베이지’ 컬러를 추가한다.

삼성전자는 27일 삼성닷컴을 통해 ‘비스포크 AI 콤보’ 신규 컬러 런칭 알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에게 5만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25kg의 세탁 용량과 15kg의 건조 용량을 갖춘 신개념 세탁·건조기로, 출시 이후 가전 시장에서 판매 동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다크실버스텔’ 색상으로만 판매 중인 데 출시 2주 만에 3000대 판매고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을 맞아 화사한 색상의 새틴라이트베이지 컬러를 추가로 출시하며 흥행 동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컬러를 지속 출시해

### 봄 맞아 화사한 ‘새틴라이트베이지’ 컬러 추가



제품군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